
저자 (Authors)	이재환
출처 (Source)	한국목간학회 정기발표회 , 2011.4, 1-18 (18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목간학회 The Korea Society for The Study of Wooden Documents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796249
APA Style	이재환 (2011). 傳인용사지 출토 龍王 목간과 우물·연못에서의 제사의식. 한국목간학회 정기발표회, 1-18.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210.178.101.*** 2020/03/25 13:41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 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한국목간학회 정기발표회 발표문> 2011.4.8.

傳인용사지 출토 龍王 목간과 우물·연못에서의 제사의식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과정
이재환

I. 머리말

경주 월성에서 남쪽으로 70~8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傳仁容寺址는 金仁問의 원찰인 仁容寺址로 알려져 온 곳으로서, 지난 2002년부터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 의해 4차에 걸쳐 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仁容寺에 대해서는 『三國遺事』에 唐의 獄에 갇힌 金仁問을 위해 관음도량으로 지었다가 그가 귀국 도중 사망하자 미타도량으로 바꾸었다는 기록이 확인된다.¹⁾ 1930년대 大坂金太郎가 지명의 음운학적 변화에 근거하여 현재의 경주시 인왕동 341-3번지 일대를 인용사지로 비정한 뒤 계속해서 인용사지로 불리어 왔으나, 4차에 걸친 발굴조사 결과 절터 유적의 연대 상한이 8세기 중후반으로 판단되면서 『삼국유사』에 기록된 인용사로 보는 데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 상태이다.²⁾ 발굴과정에서 신라지역 최초의 와축기단 건물지가 확인되어 주목을 받았고, 우물 ㉔ 내부에서는 목간이 1점 발견되어 지난 2010년 7월 한국목간학회 제9회 정기발표회에 소개된 바 있다. 이 목간은 상태가 좋은 편으로 많은 양의 목서가 쉽게 판독됨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대한 본격적인 고찰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석상 중요한 부분에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이두로 추정되는 문구가 등장하며, 결정적인 몇 글자의 일부분이 박락되어 판독되지 않는다는 것이 난점으로 작용한다. 새로운 이두에 대한 해석 문제는 오늘의 다른 발표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질 것이므로, 본 발표는 목간의 출토 맥락 및 함께 출토된 유물의 양상을 통해서 목간의 내용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II. 傳인용사지 우물 출토 목간 소개 및 판독

목간이 발견된 우물 ㉔은 동회랑지에서 남쪽으로 20m 정도 떨어져 있으며, 東池 동편 호안석축에 인접하여 있다. 목간은 우물 내부 매몰토의 상층부를 일괄 제토하는 과정에서 수습되어 정확한 출토위치를 특정할 수는 없다고 한다.³⁾ 단, 우물의 바닥에서

1) 『三國遺事』 卷第二, 紀異第二 文虎王法敏條

2) 권택장, 2010 「경주 傳仁容寺址와 ‘大龍’ 목간」, 한국목간학회 제9회 정기발표회 발표문.

3) 권택장, 2011 「경주 傳仁容寺址 유적 발굴조사와 木簡 출토」 『목간과 문자』6호, 한국목간학회, 138쪽.

100cm 두께로 퇴적된 흑갈색사질토와 자갈모래층보다는 상층에서 출토되었으므로, 적어도 우물 축조시에 넣어진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흑갈색사질토층에서는 원반형토제품과 소·돼지·말·고라니·사슴·개 등의 육상동물뼈, 기러기·오리·까마귀·꿩·닭 등 조류뼈, 어류의 뼈 및 복숭아씨가 다량으로 출토되었고, 자갈보래층에서는 원반형토제품과 인화문토기, 銅串이 등이 출토되었다. 내부 출토유물의 연대는 바닥층의 인화문토기와 상층부의 중국제 청자를 참고할 때 8세기 초에서 9세기 말 또는 10세기 초 정도로 추정된다. 목간의 하한 연대는 이보다 더 늦을 가능성이 열려 있다.

목간의 수종은 소나무이며, 길이는 15.7cm, 너비 0.4~1.4cm, 두께 0.1~0.9cm, 무게 11.63g이다. 일부 박락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완형을 유지하고 있다. 목서는 양면에 있는데, 앞면은 한 행으로 되어 있는 데 반해, 뒷면은 두 행이 서로 반대방향으로 서사되었다. 전면을 기준으로 하단부의 왼쪽 측면의 좁게 다듬고, 횡단면도 칼날처럼 한쪽을 날카롭게 다듬어 刀子和 같은 형태를 갖춘 것 또한 특징적이다. 전면의 하단부를 살펴보면 좁아진 면을 의식하여 목서의 글자 크기가 조금씩 작아지고 있어, 먼저 刀 형태로 다듬은 뒤 목서를 기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목흔이 선명하여 몇 글자를 제외하면 판독에 큰 무리가 없다. 판독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전면 : 大龍王中白主民渙次心阿多乎去亦在
 후면 逆방향 : [名]者所貴公歲卅金[侯]公歲卅五
 正방향 : 是二人者歲(□)中人亦在如□与□右□

전면 8번째 글자는 오른쪽 부분이 다소 뭉개져 확실하지 않지만 형태상 渙과 가장 유사하다. 그 다음 글자인 次와 心은 사이가 꽤 떨어져 있으나 문맥에 따라 합쳐서 ‘恣’자일 가능성도 부정할 수는 없다. 후면 역방향의 첫 글자는 왼쪽 부분이 조금 떨어져 나가 정확한 글자 형태를 파악하기 어렵다. 기존의 판독자인 名를 그대로 수용하고자 한다. 후면 역방향의 9번째 글자는 기존에 ‘侯’로 판독하였는데, 정확히 일치한다고는 볼 수 없으나 대안을 제시하기 어렵다. 정방향의 歲와 中 사이는 공간이 있지만 목흔이 잘 보이지 않는다. 글자가 없었을 가능성도 있다. 在 다음 글자인 11번째 글자는 ‘口’만 보이지만 좌측 박락부위에 목흔이 보여서 ‘如’字라고 판단하였다. 기존 판독문에서도 如자로 보았다.⁴⁾ 그 다음 글자 역시 좌측 상부가 떨어져 나갔는데, 남아 있는 부분은 ‘契’字에서 ‘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해당한다. 기존 판독문에서는 契로 보았으며, 嚙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견해가 제시된 바 있다.⁵⁾ 与 다음 글자와 右 다음 글자는 판독하기 어렵다.

전면은 전체적으로 판독되지 않는 글자가 없으나 해독은 쉽지 않다. 후반부가 이제껏 접해보지 못한 낯선 이두이기 때문이다. 후면 정방향 행의 후반부 역시 박락으로 인해 결정적인 동사를 해석해 내기 어렵다. 다만, 전면 첫 부분이 “大龍王中白”, 즉 “대용왕님께 아뢰입니다.”로 시작하며, 후면 역방향에서 ‘所貴公 歲卅’, ‘金[侯]公 歲卅五’라고 하여 두 인물의 이름과 나이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신출 이두와 박

4) 권택장, 2010 앞의 발표문.
 5) 한국목간학회 제9회 정기발표회 당시 윤선태 선생님의 판독안이다.

락 부분의 해석은 뒤로 미루고, 우선 이러한 기본적인 정보를 전제로 하여 목간의 외형적 특징을 통해 그 성격과 내용을 추적해 보겠다.

Ⅲ. 목간의 외형적 특징과 용도

외형적으로 느껴지는 가장 특이한 점은 刀形으로 가공되었다는 점 이외에, 전면과 후면의 행수가 다르며, 후면은 각 행이 서로 반대로 서사되었다는 데 있다. 목간의 서사 순서를 추정하자면, ‘大龍王’으로 시작하는 전면이 전체 내용의 시작인 듯하며, 후면 정방향의 ‘与’字 다음 글자가 逆방향의 ‘所’字에 밀려 왼쪽으로 치우친 것으로 보아, 후면의 逆방향이 정방향보다 먼저 서술된 것으로 보인다. 내용상으로도 역방향에 두 사람의 공이 나오고 정방향이 ‘是二人’으로 시작하고 있으므로, 역방향 행이 내용상 앞선다고 하겠다. 즉, 이 목간의 서사자는 목간의 전면을 쓴 뒤, 목간의 앞뒤와 위아래를 뒤집어 후면의 역방향 행을 서사하고, 다시 위아래를 뒤집어 후면의 정방향 행을 쓴 것이다. 기존의 보도자료와 발표문에서는 본 목간을 인사 천거에 관련된 문서 목간으로 파악하였으나,⁶⁾ 동일 면의 상하를 뒤집어 서사한 것은 문서와 같은 일상적인 상황의 서사 방식으로 보기 어렵다.

이와 관련해 참고되는 것이 부여 능산리사지 295번 목간이다. 제의에 사용된 이 남근형 목간의 後面에는 ‘无奉’과 ‘天’이 서로 반대방향으로 서사되어 있다. 우물·연못의 제사의식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창녕 화왕산성 목간³⁾의 경우에도 4열중 3열은 나머지 열과 달리 위·아래를 거꾸로 썼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⁷⁾ 이들 목간은 모두 일상적인 용도가 아니라 제의라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된 것으로 동일면의 서사 방향을 바꾼 것도 그와 관련된 주술적 의도에 기인하였다고 생각된다. 전인용사지 목간의 경우도 일상적인 용도가 아니라 제의 혹은 주술적 용도를 가진 것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일본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 高槻市 清福寺町の 阿久都神社 남쪽 참도에서 발견된 平安時代 중엽에 만들어진 우물의 바닥에서는 2개의 그릇과 齋串, 빛, 복숭아씨 등 제사유물 세트가 발견되었다. 두 그릇 모두에 목서가 되어 있는데, 그중 하나에는 ‘封’자가 원형으로 목서된 가운데에 ‘中央土公水神王’·‘西方土公水神王’·‘東方土公水神王’·‘南方土公水神王’·‘北方土公水神王’ 등 5방의 土公 水神王을 적었다. 이 가운데 ‘南方土公水神王’만은 다른 土公 水神王과 달리 위아래가 뒤집혀 있는 점이 흥미롭다. 발굴을 담당한 高槻市教育委員會는 『嶋上郡衙跡發掘調査概要 五』에서 이 제사용구 세트가 우물을 새로 구축할 때 水神이 노하지 않게 진정시키고, 우물의 물이 마르지 않기를 기원하는 제사에 사용되었다고 보았다.⁸⁾

이와 같은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전인용사지 출토 목간은 우물에서 행해진 모종의 제의에 사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첫머리에 등장하는 ‘大龍王’은 그 제의의 대상이 우물에 거주하는 용왕이라는 사실을 암시한다. 같은 우물에서 출토된 유물들 또한

6) 권택장, 2011 앞의 논문에서는 석문을 제시하지 않았다.

7) 박성천·김시환, 2009 「창녕 화왕산성 蓮池 출토 木簡」 『목간과 문자』4, 206쪽.

8) 水野正好, 1991 「鎮井祭の周辺」 『陰陽道總書 第4卷 特論』, 名著出版, 226~228쪽.

우물제사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그렇다면 목간에 언급된 두 인물은 어떠한 존재이며, 우물에서 용왕에게 지낸 제의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였을까? 그리고 刀形이라는 형태는 우물제사와 어떤 관련을 가지는 것일까?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물과 우물에서 이루어진 제의 행위의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IV. 우물과 용왕제사

우물이 인간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생활 용수를 공급한다는 기본적인 역할 이외에, 공적인 제의공간으로서도 활용되었음을 환기시킨 것은 풍납토성 경당지구 206호 우물의 발굴이었다. 이 우물 속에는 200여 점을 넘는 완형 토기류가 인위적으로 차곡차곡 매납되었는데, 대부분 영산강유역을 포함한 백제의 지방 각지에서 제작된 토기들이었다. 이에 근거하여 백제 왕성의 御井을 축조하면서 복속의례의 일환으로 각 지방의 성수를 가져와 붓고 용기를 매납하는 舍水儀式이 치러졌을 수 있다는 추정이 제기된 바 있다.⁹⁾ 경당지구는 풍납토성 내에서도 중심부에 해당하며, 종교·제의적 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다. 매납된 토기들 중 내부에서 복숭아씨가 발견된 점도 이 우물에서 제의 행위가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추정을 뒷받침한다.

풍납토성 206호 우물을 이외에도, 논산 마전리 우물, 아산 갈매리 우물, 풍납토성 대진·동산연립주택부지 나Tr. 목제우물, 대구 시지지구의 여러 우물들, 경주박물관부지 미술관부지내 우물 및 연결통로부지 우물, 서울 호암산성 한우물 제2우물지 등 여러 우물에서 완형 혹은 의도적으로 파쇄한 토기를 대량으로 매납되었거나, 제사용구로 널리 인정되는 銅鏡 銅鈴이나 鳥形 木製品 등이 발견되어 우물이 祭場으로 기능한 사례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당시인들이 넓은 의미에서의 우물로 간주하였다고 생각되는 연못들 또한 제의의 장소로 활용되었다. 山城池가 가지는 祭場으로서의 성격에 대해서는 이미 다루어진 바 있는데,¹⁰⁾ 안압지나 궁남지 등 평지에 인공으로 조성된 연못 역시 마찬가지로 의미를 가졌다. 함안 성산산성 최종저수지, 하남 이성산성 A지구 1차 저수지, 궁남지, 안압지와 창녕 화왕산성 연지 등에서는 '井'자가 씌여진 토기들이 발견되어, 이들이 우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넓은 의미의 우물로서 祭場으로 간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로 광주 신창동 저습지, 아산 갈매리 수로, 부여 논치 구상유구, 공주 공산성 지당, 부여 궁남지, 부여 관북리 가-2지구 E구역 연못, 부여 부소산성 가지구 인공수로, 부여 부소산성 나지구 원형저수조, 하동 고소성 집수정, 광양 마로산성 석축집수정, 여수 고락산성 집수정 및 구상유구, 청원 양성산성 원지, 남해 대국산성 연지, 충주 충주산성 동문 남측 저수지, 대전 계족산성 1·2차 저수지, 하남 이성산성 A지구 1·2차 저수지 및 C지구 저수지, 함안 성산산성 S10W0조사갱 저수지 및 최종저수지, 아차산성 A지구 성

9) 권오영, 2008 『성스러운 우물의 제사 -풍납토성 경당지구 206호 유구의 성격을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11권 2호, 239쪽.

10) 鄭義道, 2007 「祭場으로서 山城 研究 : 鎭山을 중심으로」 『文物研究』 제12호, 東아시아文物研究學術財團·韓國文物研究院 ; 오승연, 2007 「新羅 山城池의 機能과 展開」 『慶文論叢』 創刊號, 慶南文化財研究院.

내 트렌치, 서울 호암산성 한우물 통일신라 석축지, 창녕 화왕산성 연지, 안압지 등을 들 수 있다. 이상의 우물·연못 제사유적에서 발견된 유물들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이러한 우물·연못에 거하면서 물을 주관하는 神으로 여겨진 대상은 龍이 분명하다. 안압지에 설치되었던 ‘龍王典’이라는 관서명과 龍王에 관련된 유물들, 창녕 화왕산성 목간과 전인용사지 목간에 보이는 ‘龍王’이라는 명문 등은 우물·연못 제사에 거주하는 水神으로서 제사의 대상은 곧 龍 혹은 그것이 의인화한 龍王으로 상정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문헌적 검토를 통해서도 신라사회에서 龍이 井泉神的 성격을 뚜렷이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¹¹⁾ 백제 武王의 탄생담에 京師 南池의 龍이 등장하며,¹²⁾ 백제의 우물·연못에서 출토되는 제사용품의 유물상이 신라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감안하면, 백제 지역 우물·연못의 제사 대상 또한 龍 혹은 龍王이었다고 하겠다.

龍의 기본 성격은 水神이므로 용왕을 대상으로 한 제사 의식에서 기원 내용은 물에 관계된 것이 많다. 祈雨나 祈晴이 주를 이루며, 우물에 맑은 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기를 기원하기도 하였다. 바다에 거주하는 龍王에게는 豐漁와 해상 안전을 빌었다. 용왕이 권능을 가진 神格으로 널리 받아들여지면서, 그에게 祈子하거나 治病을 기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용왕에게서 원하는 바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제물을 바치고 정중하게 기원하는 기본적인 제사 방식 이외에 용을 그리거나 만들어서 형상화하는 像龍, 용과 비슷하다고 여겨지는 특정 생물체를 선택하여 용을 대신하는 代龍, 용이 거한다고 생각하는 연못·개울·강·바다 등에서 수중의 潛龍을 자극하는 방법 등의 ‘용부림’법이 존재했다. 그중 우물·연못과 관련이 깊은 潛龍祈雨의 실질적인 행동양식으로는 유인·위협·오염이 있다.¹³⁾

우물·연못제사 유적에서 확인되는 유물들 가운데 철제품과 숫돌, 짚신·벼루와 개·돼지의 시체 등 오염물, 어망추 등은 龍을 자극하기 위한 ‘용부림’ 용품으로 판단된다. 한편 복숭아 씨앗이나 머리빗을 중심으로 한 모발 관련 용구, 방울과 鳥形 목제품 등은 자체가 주술적 힘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져, 우물·연못에서의 제사뿐 아니라 다른 유형의 제의나 주술에도 널리 사용되어 왔다. 男根을 사실적으로 모방한 목제품이나, 그와 형태적·상징적 유사성을 가진 자루형 목제품, 목제 방망이 등도 우물·연못에서 발견 사례가 많은데, 男根形은 그 자체로 강한 陽氣나 생식력을 상징하므로 呪力을 가진 祭具로서 제의나 신앙 활동에 활용된다. 그러나 창녕 화왕산성 출토 남근형 목간과 같이 철제 못이 박혀 투기된 경우는 龍을 자극하기 위한 용도로도 해석할 수도 있다.

전인용사지 우물을 비롯한 많은 우물·연못 제사유적에서 다수 출토된 바 있는 원반형 제품은 아직까지 용도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풍납토성 경당지구에서도 원반형 토제품이 57점이나 출토되었는데, 형태적으로 이것이 일본 제사유적의 석제 모조품과 흡사하기 때문에, 제의용일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제기된 바 있다.¹⁴⁾ 원반형은 돌

11) 조법중, 2002 「한국 고대사회와 용 -『삼국사기』에 나타난 용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용, 그 신화와 문화 한국편』, 민속원, 148~151쪽.
12) 『三國遺事』 卷第二 紀異第二 武王條.
13) 최종성, 2002 「龍과 巫 : 토룡기우」 『용, 그 신화와 문화 한국편』, 민속원, 316쪽.
14) 權五榮·權度希·韓志仙, 2004 『風納土城Ⅳ -慶堂地區 9號 遺構에 대한 發掘報告-』, 한신大學校博物館叢書 第19冊, 한신大學校博物館, 321쪽.

이나 흙으로 제작하며, 기와를 재활용한 사례가 많다. 공통점은 둥근 형태인데, 원반 혹은 원판 형태로 다양한 크기를 가지는 제의용구라면 일본이나 다른 우물·연지의 제사유물 세트를 참고로 할 때 銅鏡을 모방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를 인정한다면 역시 우물·연지에서 출토 사례가 많은 토제·석제 방추차 역시 유사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¹⁵⁾ 원반형 토·와제품 중에도 가운데에 구멍을 뚫거나 뚫으려 한 사례가 있고, 일부 보고서에서는 방추차라고 보고하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용부림’ 물품이나 자체의 呪力を 바탕으로 여러 종류의 주술이나 제의에 활용되는 용구 외에, 龍王에게 祭物로서 바쳐졌다고 해석되는 유물들도 있다. 이들은 전인용사지 출토 목간의 성격을 밝힐 실마리가 될 수 있으므로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V. 龍王에게 바쳐진 供獻物들

앞서 돼지나 개의 피가 부정적인 의미로서 용의 거처를 오염시켜 비를 불러오는 역할을 담당했던 것과 달리, 말은 水神인 龍王에게 제공되는 희생물로 해석된다. 말을 희생으로 삼는 제의는 水神에 대한 제사, 葬送에서의 희생, 토목공사나 전쟁에서의 희생 등의 사례가 세계적으로 널리 확인되고 있다.¹⁶⁾ 祈雨에 관련된 제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되는 풍납토성 경당지구 9호 유구에서는 10마리 분의 동물 머리가 출토되었는데, 대부분 말뼈이다. 몸통과 사지골이 확인되지 않은 채 상악골과 하악골이 출토된 점에서 유구 외부에서 참수한 뒤 머리만 수혈 내에 투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 水神에 관련된 제사에 白馬와 黑馬를 사용한다는 기록이 있으며, 고고학적으로도 수변제사 유적에서 말의 머리가 발견된 사례가 많다.¹⁷⁾ 부여 궁남지와 하남 이성산성 A지구 2차 저수지, 경주 안압지에서는 희생으로 쓰였다고 판단되는 말뼈가 다량 확인되었다.

그러나 언제나 실제 동물이 희생되었던 것은 아니다. 말을 대신하여 馬具를 투기한 경우도 보인다. 여수 고락산성 집수정1, 충주 충주산성 동문 남측 저수지, 경주 안압지, 창녕 화왕산성 연지에서는 나온 철제 재갈, 여수 고락산성 집수정1, 경주 안압지에서 출토된 철제 행엽, 창녕 화왕산성 연지와 경주 안압지에서 나온 철제 등자 등이 그 예이다. 銅鏡이나 男根形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조품을 제작해서 대신 供獻한 경우도 있다. 함안 성산산성 S10W0조사갱 저수지에서 출토된 목제품 일본의 馬形代와 흡산 것이 있는데, 이는 실제 말을 대신하여 供獻된 의기라고 생각된다. 포천 반월산성 애기당지에서는 말 머리와 유사한 도제 동물상 및 철제 말이 다량 출토되었다. 여수 고락산성 집수정1 남쪽 건물지에서도 철제 말이 다량 발굴된 바 있다.

15) 아산 갈매리 유적 수로, 부여 논치 제사유적 구상유구, 공주 공산성 지당2, 여수 고락산성 집수정 1·2, 대구 시지지구 19G-3호 구, 청원 양성산성 원지, 충주 충주산성 동문 남측 저수지, 경주박물관부지 미술관부지내 구상유구·연결통로부지 우물, 하남 이성산성 A지구 2차 저수지·C지구 저수지, 함안 성산산성 최종 저수지, 아차산성 A지구 성내 트렌치, 대구 시지지구 9G-2호 우물, 서울 호암산성 한우물, 창녕 화왕산성 연지, 안압지 등에서 대량으로 출토되었다.

16) 金子裕之, 1999 「佛教·道教の渡來と蕃神崇拜」 『古代史の論點』5 神と祭り, 小學館(權五榮·權度希·韓志仙, 2004 앞의 논문, p.319에서 재인용).

17) 權五榮·權度希·韓志仙, 2004 앞의 논문, pp.319~320.

馬形이 희생으로서 말을 대신하였다면, 人形은 인간을 대신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눈과 심장 등 주요 기관에 못이 박힌 상태로 발굴된 창녕 화왕산성 연지 출토의 인형 목간 이외에, 하남 이성산성 A지구 2차 저수지에서도 못이 박힌 인형이 출토되었다. 안압지에서도 2개의 인형이 발굴된 바 있다. 부여 관북리 가-2지구 E구역 연못에서는 목제인형다리가 2개 발견되어 인형이 존재하였음을 보여준다. 이 유적에서는 바닥에 사람 얼굴이 그려진 목서인면문토기 또한 출토되었다. 인간 희생의 대체물을 담아 용왕에게 헌납하는 데 사용된 토기일 가능성이 있다. 하남 이성산성 A지 2차 저수지에는 목제인면 조각품 또한 발견되었다. 출토 당시 얼굴이 바닥 모래층을 향하고 3조각으로 파손된 상태였는데, 실제 가면으로 사용하기엔 크기가 작아 의례용으로 파악해 왔다. 이 또한 인간을 대신한 제의용구일 가능성이 있다.

人形이 인간을 대신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언제나 희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에서 출토된 人形의 경우 神에게 供獻하는 용도 이외에 大祓의식에서 인간의 罪를 代贖시키는 용도 또는 詛呪用具로 파악하는 견해가 있다. 창녕 화왕산성 출토 인형 목간에 대해서는 현재 祈雨祭에 사용된 것으로 보는 설과 治病을 위한 제의에 사용되었다고 보는 설이 모두 나와 있다.¹⁸⁾ 그러나 治病용으로 보기에 급소마다 찢린 못이 어색하며, 함께 출토된 남근형 목간에 꽃힌 못의 의미를 해석하기 어렵다. 藤原京 左京 구역에서 출토된 인물상을 그린 목간의 경우, 도로 측구에 바닥에서 나왔으며, 龍王을 기원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희생으로서의 책임을 부여받은 인물의 이름(麻佐女)과 나이(廿九)를 적고 인물상을 그린 뒤 실제 인물을 대신하여 묻힌 것으로 이해된다.¹⁹⁾ 따라서 인물상이 그려지고 나이가 적힌 화왕산성 연지 출토 목간 4 또한 인간을 대신하는 희생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렇다면 개·돼지의 피를 싫어한다는 龍王이 인간 희생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龍은 인간 희생을 바칠 수도 있을 대상이었을까? 후대의 마을 신앙이나 민속극에는 사람을 잡아먹는 용이 등장한다.²⁰⁾ 『심청전』에도 인신공희 모티프가 남아 있다.²¹⁾ 『三國遺事』에는 인간을 납치하거나 해를 입히는 惡龍이 등장하지만 인신공희가 직접 묘사되어 있지는 않다. 이에 국립경주박물관 연결통로부지 우물에서 발견된 8세 아이의 人骨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발굴자는 이 人骨이 모종의 제사를 위해 희생으로서 바쳐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우물에서 방추차, 목제 빗, 용도미상 청동제품, 어망추, 솟돌, 목제 자루, 소뼈 1/4마리분 등 우물제사와 관련된 유물들이 다량 출토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제사의 대상은 역시 우물을 주재하는 龍王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龍王이 인간을 제물로 받는 존재로 여겨졌으며,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우물에서의 용왕제사가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人形이 출토된 안압지와 이성산성 A지구 2차 저수지, 관북리 가-2지구 E구역 연못에서는 船形 목제품 또한 출토되었다. 그리고 부여 궁남지, 국립경주박물관 미술관부지

18) 김재홍, 2009 앞의 논문 ; 김창석, 2010 「창녕 화왕산성 蓮池 출토 木簡의 내용과 용도」 『목간과 문자』5호
 19) 김창석, 2010 앞의 논문, 6쪽.
 20) 심우성, 1981 『한국의 민속극』, 창작과 비평사, 102~103쪽(홍태한, 2002 「한국민속과 용」 『용, 그 신화와 문화 -한국편-』, 281쪽에서 재인용).
 21) 신월균, 2002 「한국설화에 나타난 용의 이미지」 『용, 그 신화와 문화 -한국편-』, 269쪽.

내 우물, 이성산성 A지구 1·2차 저수지, 관북리 가-2지구 E구역 연못 및 경주 안압지 등에서는 많은 양의 刀·劍形 목제품이 나왔다. 다른 우물·연못에서 나온 유물 가운데서도 용도미상 목제품이나 목흔 없는 목간으로 분류된 것들 중에 刀劍과 유사한 형태를 가진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데 人形, 馬形, 船形, 刀形은 일본의 우물제사에서 주요한 祭料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우물에 대한 발굴이 훨씬 많이 이루어진 일본에서는 우물제사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발표되어 왔다. 北田裕行은 우물제사를 제사유물의 출토 상황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먼저 우물의 掘形이나 바닥 시설 내에서 제사유물이 출토될 경우, 이는 鑿井時 행해진 제사의 흔적으로서 우물의 신을 초빙하여 맑은 물이 잘 용출되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가진다. 우물 사용시 퇴적된 최하층에서 출토된 제사유물은 우물 사용시에 지낸 제사의 흔적이며, 治病이나 詛呪를 목적으로 한 사례도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목적은 祈雨이다. 埋土의 중·상층으로부터 제사 관계 유물이 출토되는 경우는 우물을 매몰시킬 때 우물 신에게 감사하거나 그 저주를 막기 위한 鎮井祭의 흔적이라고 본다. 우물제사 유적에서 발견되는 대표적인 유물로는 齋串, 土馬, 복숭아씨, 빛, 화폐, 유리 옥, 刀子, 銅鏡, 국자 및 人形, 완형토기, 墨書人面土器 등을 들 수 있다. 우물의 掘形에서는 齋串, 錢貨, 杓子 등이, 최하층이나 바닥에서는 齋串, 유리玉, 錢貨, 복숭아씨 등이, 상·중층으로부터는 齋串, 土馬, 복숭아씨 등이 출토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²²⁾

그리고 7세기부터 9세기에 이르기까지 人形·齋串과 馬形·船形 및 刀形이 set를 이루며 출토된 경우가 많이 보인다. 일본의 人形 사례 중 상당수는 大祓 의식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희생제의와 곧바로 연결지어 해석할 수는 없으나, 刀形이 인간을 대신하는 의미를 가진 人形을 이용한 제의와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한편 인간 희생을 대신하는 공헌물로서 일본 우물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齋串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齋串은 圭頭に 尖眉를 가진 목제품으로서, 하찰 목간과 형태가 유사하다. 좌우측에 V자형 절입부를 하나 또는 여럿 만든 경우도 있다. 표면에 묵서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묵서를 하거나 그림을 그린 사례도 있다.²³⁾ 齋串은 착정시·정호 사용시·매정시 등 우물관련 제사에서 언제나 사용되었으며, 출토량도 가장 많다. 그 용도에 대해서는 神을 초빙해 깃들게 했다는 설, 성역 주위의 땅에 꽂아 세워서 경계를 표시하였다는 설과, 폐백 및 헌납품을 걸어두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설 등이 제기되어 있다. 그런데 平城京 左京八條三坊 三坪의 10세기 중엽 우물 SE18 속에서 齋串 5枚가 土師器 皿 속에 넣어진 채 매납된 양상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곧 齋串 자체가 우물 신에게 바쳐지는 헌납품이었음을 의미한다. 龍이나 다른 水神이 나무조각을 제물로 받고 싶어한다는 기록이나 전승은 없다. 齋串이 우물 신에게 供獻되었다는 것은 그것이 다른 무언가를 대신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의미한다. 齋串은 人形과 set를 이루어 도성의 溝에서 출토되는 사례도 많다. 이것은 齋串이 인형과 함께 인간을 御贖物로서의 기능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해석된다.²⁴⁾

22) 北田裕行, 2000 「古代都城における井戸祭祀」 『考古学研究』第47巻第1号(通巻185號), 54쪽.

23) 黒崎 直, 1986 「齋串考」 『日本考古學論集 3 呪法と祭祀·信仰』, 吉川弘文館, 194~196쪽.

24) 北田裕行, 2000 앞의 논문, 55~61쪽.

그렇다면 토기 속에 넣어 우물에 매납한 사례 또한 인간 희생을 대신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반도의 우물·연못 제사에서 출토되는 제사 관련 유물의 양상은 일본의 경우와 흡사하다. 그렇다면 유독 한반도에 齋串만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일까? 齋串은 그 외형을 기준으로 할 때, 일본의 목간분류 011형식과 잘 구분이 가지 않는다. 齋串과 人形 모두 011형식의 목간에 기반하여 제작되었다는 보기도 한다.²⁵⁾ 시기차와 지역차가 크긴 하지만 하단부가 뾰족하며 납작한 형태의 人形이 중국에 존재하는 것을 감안하면, 人形과 齋串, 그리고 刀形까지도 같은 기원에서 출발하였을 수 있다.

아무튼 형태로 齋串과 木簡을 구분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은 그 출토 맥락일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하남 이성산성 A지구 2차 저수지에서 출토된 목간3·4·5이 주목된다. 이들 목간은 병8에 넣어진 채로 발견되었다. 平城京 左京八條三坊三坪 우물 SE18의 齋串과 유사한 맥락이라 하겠다. 상하단을 모두 약간 圭形으로 다듬고 가운데가 볼록한 형태로서 일본의 齋串과 형태적으로 완전히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우물의 신에게 바쳐진 供獻品인 점은 동일하다. 龍王이 목간 자체를 받고자 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이 목간들 또한 다른 대상을 대신하여 헌납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마찬가지로 A지구 2차 저수지에서 출토된 목간7·8·9·10 또한 대부장경병 내부에서 출토되었다. A지구 2차 저수지에서 4차 발굴조사 때 추가로 발견된 목간1~5도 단경호 내부에서 수습된 점이 눈에 띈다. 이중 목간2와 목간5는 『한국의 고대목간』에서 125번과 126번으로 넘버링된 바 있다. 비교적 완형이 잘 남아 있는 목간1과 목간4의 형태를 보면 상단 좌우측에 절입부가 있고 하단부는 圭 모양으로 다듬어져 있다. 창녕 화왕산성에서 출토된 목간1(유물번호 164)의 경우에도 형태적으로는 일본의 齋串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지만, 셋으로 잘린 뒤 단경호 내부에서 출토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토기를 재활용하여 원반형 와·토제품을 만들고, 방망이나 목제품 자루 부분을 재활용하여 남근형 목제품을 만든 사례를 참고할 때, 실제 목간을 재활용하여 齋串과 같은 의미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VI. 전인용사지 출토 刀形 목간의 의미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간략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물의 신인 용왕에게는 인간 희생이 바쳐지기도 하였는데, 이를 다른 대리품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었다. 대표적인 것은 人形인데, 齋串이나 刀形은 人形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齋串은 人形과 마찬가지로 인간을 대신하여 龍王에게 공헌품으로 바쳐지기도 했다. 전인용사지 목간의 형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刀形인 동시에 하단부가 尖尾形이라는 점에서 齋串과의 유사점도 찾아볼 수 있다. 일본의 福岡 香椎B유적에서 출토된 齋串은 전인용사지 출토 목간과 형태가 매우 유사하다. 그런데 이 齋串에는 사람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 이것이 人形과 마찬가지로 인간을 대신하여 의례에 활용되었음을 보여준다.²⁶⁾ 전인용사지 출토 목간의 형태가 함의하고 있는 의미를 이렇게 해석할 수

25) 和田 萃, 1982『呪符木簡の系譜』『木簡研究』第四號, 110쪽.

있다면, 목간에 등장하는 所貴公과 金[侯]公은 곧 龍王에게 바쳐지는 희생 제물을 가리키는 것이 된다. 人柱로 희생되는 대신 목간에 이름과 나이를 적은 뒤 묻은 藤原京 출토 목간의 사례도 참고할 수 있다.

목간이 사람을 대신하여 희생 제물로서 바쳐졌다고 할 때, 목간에 적혀 있는 인명이 반드시 실존하는 인물을 가리킬 필요는 없다. 목간에 등장하는 인명인 ‘所貴公’과 ‘金侯公’은 단순히 귀한 사람임을 나타내고자 하는 듯 작위적인 느낌을 준다. 창녕 화왕산성 출토 인형 목간의 경우, 사람의 형상을 그리고 이마에 ‘眞族’이라고 적었는데, 이를 인물의 출신성분과 관련지어 해석해 왔으나, 이 또한 인형에 부여된 가상의 人格이 가진 이름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平安京跡右京六條三坊六町 출토 人形 목간은, 남녀 한 쌍을 이루는데, 남성상은 왼쪽 가슴과 오른쪽 가슴에, 여성상은 가슴에서 배에 걸쳐서 ‘葛井福万呂’·‘檜前阿古□□’라고 크게 이름을 적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곳에 이름을 적는 것이 자연스럽게 보인다면, 화왕산성 출토 인형 목간의 이마에 쓰인 ‘眞族’ 또한 이름일 수 있다. 뒤에 다시 한 번 등장하는 ‘眞族’ 앞의 글자를 ‘廿九歲’라고 읽은 판독을 받아들일 경우, 이름과 나이를 기록한 것이 전이용사지 출토 목간이나 藤原京 출토 목간과 일치한다. ‘眞族’ 또한 ‘所貴’나 ‘金[侯]’만큼이나 작위적인 이름으로, 가상의 인격일 가능성을 높여준다.

그럼, 목간에 기록된 두 인물이 용왕에게 바쳐진 희생 제물이라고 보고 미루어 두었던 목간 내용의 해석을 다시 시도해 보겠다. 목간의 내용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전면 초반의 ‘大龍王中白’으로서 뒷 부분이 모두 이 白의 내용에 해당한다. 그 다음 ‘主民渙次心阿多乎去亦在’는 龍王에게 기원을 하게 된 계기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는 ‘名者所貴公世卅金[侯]公歲卅五’로서, 희생 제물로서 바쳐진 가상의 인물을 열거하는 것이다. 끝으로 ‘是二人者歲(□)中者亦在如□与□右□’는 박락된 부분 때문에 명확한 해석이 어렵지만, ‘이 두사람은’으로 시작하고 있어 희생 제물인 두 사람의 처분에 관련된 내용이 아닌가 한다. 그렇다면 후면 정방향 12번째 글자를 ‘喫’으로 본 판독안을 받아들여 ‘먹다’는 의미로 파악할 때, 희생과 용왕의 관계가 잘 이어진다. 이 두 부분은 잠정적으로 9회 정기발표회 발표문의 해석을 참조하여 해석안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전면) 대용왕님께 아뢰입니다. 주와 民이 흠어지던 차에 마음에 많이 감이 있습니다.
 (후면 역방향) (제물의) 이름은 소귀공, 나이 서른이며, 김(후)공, 나이 서른 다섯입니다.
 (후면 정방향) 이 두 사람은 나이가 적당합니다. (잡수시고)……

VII. 맺음말

지금까지 우물·연못에서 행해진 용왕제사의 흔적들에 대한 비교 검토를 통해 전이용사지 목간의 내용 파악을 시도해 보았다. 부족한 작업이었지만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祭場으로서 우물과 연못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자료량을 확인하였다. 기존에 생활용

26) 瀧本正志, 1997 「福岡·香椎B遺跡」 『木簡研究』第一九號, 208쪽.

구로 이해되던 유물들이 용왕제사에 관련된 주술·의례 용품은 아닌지, 용도미상 목제품이나 목서 없는 목간으로 분류되던 것들 가운데 齋串이 숨어 있지는 않을지, 앞으로 출토 맥락과 이웃 나라의 사례를 연관지어 세심하게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번 발표에서 용왕에 대한 인신공희의 흔적으로 중요하게 다룬 국립경주박물관부지 연결통로부지내 우물 외에 국립경주박물관부지에서 또 하나의 우물이 발굴되었는데, 여기에서도 우물제사에 관련된 유물이 많이 출토되었다. 아울러 이 우물에서는 목간도 한 점 발견되었다. 『한국의 고대목간』에서 279번으로 넘버링된 목간인데, 중간 이하부터 목흔이 희미하여 이제껏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해 온 듯하다. 그런데 국립부여박물관에서 펴낸 『나무속 암호 목간』 도록에 실린 적외선 사진을 보면 하단부에서 ‘龍王’으로 읽을 수 있는 목서가 확인된다. 아직 유물을 실견하지 못하여 확신할 수 없지만, 해당 부분의 판독이 ‘龍王’이라면, 우리는 신라의 용왕제사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하나 더 가지고 있는 셈이다. 이 목간의 판독 및 해석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기를 기대한다.



<그림 1> 전인용사지 출토 용왕목간

<표 1 > 우물·연못 출토 유물

유적명	呪力을 가진 물품	용부림 물품	공헌물	토기, 와전류	기타
논산 마전리 KW-001	조형 목제품			송국리형 토기 완형, 단도 마연토기	
광주 신창동 저습지	복숭아씨, 살구씨, 조형 목 제품, 巴文원형칠기	신발골, 목제 팽이, 목제 자루, 나무 망치	인골, 목검 다수, 도형·검형 목제품 다수, 목검 부속구, 목제 검파, 검파형 목제품	삼각구연 점토대토기문화 단계 각종 토기, 칠기, 배 모양 용기	발화대, 발화봉, 부채자루
아산 갈매리 수로	골호			파수	
아산 갈매리 우물					가공된 목재, 박, 밤
부여 논치 구상유구	토제 방추차, 납석제 방추차	주조 팽이, 철검, 철촉, 솥 돌, 남근형 파수		마한 토기로 추정되는 토 기류 다수(완형 하나도 없 이 모두 파쇄)	쌀 등 곡식류
풍납토성 대진, 동산연립주 택부지 나Tr. 목제우물	복숭아씨, 씨앗류			병	가공된 목재, 목제 두레박, 두레박 관련 무재, 따리, 조 개
공주 공산성 지당2	방추차	벼루편		각종 토기 다수, 시루 저부 편 다수, 백제·통일신라 기 와 다수, 자기류, 백자류, 전, 납석제 용기	금동불상
공주 공산성 지당1				조선시대 기와, 백제·통일 신라 기와 다수, 자기류, 백 자류, 전	
부여 궁남지	복숭아씨, 박씨, 살구씨, 가 래씨류, 과일 씨앗, 원반형 와제품, 원반형 토제품, 석 제 방추차, 목제 빗	철도자, 철촉, 철검, 철정, 솥돌, 짚신, 벼루편, 자루형 목제품, 목제 망치, 목제 공 구류손잡이형 목제품, 용도 미상 목재, 남근형	말뼈, 개뼈, 刀形목제품, 침봉형 목제품,	각종 기와, 井명 선문암키 와, 각종 토기, 이형토기편, 전돌, 시루편, 칠기, 연통형 토기,	말·소 발자국, 목간, 조개 류, 모과, 잣송이, 밤알, 밤 껍질, 갈돌, 추형 목제품, 갈 자리, 알
부여 관북리 가-2지구 E 구역 연못	살구씨, 참외씨, 원반형 와 제품, 목제 빗	짚신, 벼루, 자루형 목제품, 목제 공구	목제인형 다리, 목서인면문 토기, 선형 목제품	각종 기와 및 토기편	목간, 대나무 자, 등잔, 개 원통보, 청동 젓가락, 소쿠 리
부여 부소산성 가지구 인 공수로		청동 집게, 철정, 철부, 솥 돌, 벼루		각종 토기류, 시루, 와전류	마제 석촉
부여 부소산성 나지구 원 형저수조		철제 투겅창, 철촉, 솥돌, 벼루			

유적명	呪力을 가진 물품	용부림 물품	공헌물	토기, 와전류	기타
하동 고소성 집수정				토기류, 와전류	
광양 마로산성 석축집수정	복숭아씨	동물뼈	동물뼈	와편	조개
여수 고락산성 집수정1	방추차	철기, 숫돌	재갈, 행엽	각종 토기, 저부편, 녹유완	
여수 고락산성 집수정2	방추차				
여수 고락산성 집수정3		철부		구연부편, 동체부편	
여수 고락산성 구상유구1		철부, 철도자, 숫돌		각종 토기편, 파수, 시루편	
여수 고락산성 구상유구2		철부, 철검, 숫돌	마형 철기		
여수 고락산성 집수정4	어망추			동체부편, 개편, 배편, 고배편	
여수 고락산성 보루 집수정1				개편, 구연부편, 동체부편, 저부편	
대구 시지지구 2G-우물	목제 빗	철도자, 숫돌		단경용, 장경호, 대부호, 대부병, 완, 대각편 등 다수	
대구 시지지구 5G-1호 우물				삼국시대 도질토기편	
대구 시지지구 5G-2호 우물		철착		삼국시대 도질토기편	
대구 시지지구 5G-3호 우물	복숭아씨			단경호, 대부병, 장경호, 호	석구, 두레박
대구 시지지구 5G-4호 우물	동곳			단각고배 대각편	
대구 시지지구 6G-우물				대부병, 대부완	토구
대구 시지지구 7G-1호 우물				삼국시대 도질토기편	
대구 시지지구 8G-1호 우물				조선시대 기와편, 자기편	흙돌
대구 시지지구 8G-2호 우물				동이, 청자종지	
대구 시지지구 8G-3호 우물				삼국시대 토기편, 회색 연질토기편, 적색 연질토기편	

유적명	呪力을 가진 물품	용부림 물품	공헌물	토기, 와전류	기타
대구 시지지구 8G-5호 우물				삼국시대 토기편 다량	
대구 시지지구 9G-1호 우물					토구
대구 시지지구 9G-2호 우물		철도자		고배, 대부병, 단경호	
대구 시지지구 14G-우물	복숭아씨, 살구씨, 방추차		마형 토우편	완, 대부완 다수, 개, 대부호, 호, 파수	토구, 밤껍질, 목재 두레박
대구 시지지구 19G-1호 수혈유구		철못, 어망추		고배, 개 소옹, 단경호, 완, 시루, 구연부 의도적으로 파쇄한 소형병	토구, 석구
대구 시지지구 19G-3호 구	방추차	철촉, 철부, 철검, 철도자, 꺾쇠		완, 소호, 고배, 파수부배, 단경호, 대부호, 대각편, 시루, 파수	
대구 시지지구 20G-1호 구		철도자		삼국시대 고배, 삼국시대 시루	
대구 시지지구 20G-2호 구		철도자, 철촉, 철검, 철정, 숫돌, 짚신, 벼루편			
대구 시지지구 20G-우물	복숭아씨(100여 개)	철도자, 도자		단경호, 완, 단각고배, 병부	토구
대구 시지지구 22G-우물		소도자(안압지와 유사)			
대구 시지지구 23G-우물		개뼈		대부완, 완, 소형호	
대구 시지지구 28G-우물				대부완, 고배구연부편, 호저부, 파수	
대구시지지구 31G-우물				평저호 1 거꾸로 매납, 기타 토기편 및 토기	
대구 시지지구 16G-1호 구		철도자, 철촉, 철정		삼국시대 토기편 다량, 대부분 파편 상태, 파수, 개, 개각편	
대구 시지지구 17G-1호 구				삼국시대 토기편 소량	

유적명	呪力을 가진 물품	용부림 물품	공헌물	토기, 와전류	기타
청원 양성산성 원지	납석제 방추차	철제 따비, 주조철부편, 철제편, 철정 다수, 도자형 철지, 철도자편, 베틀편		각종 기와류, 토기 뚜껑편, 구연부편, 파수편 다수, 동체편, 완편, 저부편, 이형토기편, 자기 구연부편, 백자 저부편	
포천 반월산성 애기당지	원반형 토제품, 방추차	어망추, 솟돌	말 머리와 유사한 도제 동물상, 철제 말	삼각시대 기와류 및 토기류 다수, 파수류, 자기편 다수	석기류, 등잔류
남해 대국산성 연지				기와류, 고배, 호 구연부편, 각부편, 호 저부편, 분청사기 대접편, 청자 접시편, 백자편	
충주 충주산성 동문 남측 저수지	방추차, 납석제 방추차	철촉 다수, 철도자, 철모편, 철제 도구, 용도미상 철기편, 철제 가위, 철제못, 불명 철기편, 나무망치, 절구공이 모양 목제품, 자루형 목제품	재갈	기와류, 토기편 다수, 시루	활석제 석기편
대전 계족산성 1차 저수지		철제 대도		호편, 심발형토기편, 단경병 구연부편, 완 구연부편, 심발형토기 저부편, 기와편	
대전 계족산성 2차 저수지		철제 망치, 철제 낫, 철촉		기와류, 각종 토기편, 시루	
경주박물관부지 미술관부지내 우물	원반형 토제품, 방추차, 토제 방추차, 목제 방추차, 동곳(청동제 뒤꽂이), 목제 뒤꽂이	용도미상 청동제품, 철기류 다수, 쇠스랑, 철못 다수, 철환 다수, 꺾쇠형 철기 다수, 철도자 다수, 철촉, 갈고리형 철기 다수, 이형철기, 철제용구, 목제 어망추, 베틀다리, 목제 손잡이	용도미상 목제품	기와류, 대부완, 완, 개 이형개편, 평저호, 대부호, 병, 파수부토기, 파수부호, 동이형 토기, 사각편병, 개꼭지편, 구연부편, 동체부편, 저부편, 파수, 시루바닥편	목제 두레박, 목간, 청동완, 청동대부완, 청동손가락, 청동과대편, 청동환병, 개원통보
경주박물관부지 미술관부지내 구상유구	원반형 토제품, 방추차, 토제 방추차			대각편, 배신편, 고배, 대각편, 발, 병, 개, 다리미형 파수, 다리미편, 인화토기편	토구, 석부

유적명	呪力을 가진 물품	용부림 물품	공헌물	토기, 와전류	기타
경주박물관부지 연결통로 부지 우물	방추차, 목제 빗	용도미상 청동제품, 어망추, 솥돌, 목제 자루	8세 인골, 소뼈 1/4마리 분	기와, 토기 다수	닭뼈, 두레박, '남궁지인' 명문 원와, 토제 곡옥, 토구, 목제 대부완, 바가지편
하남 이성산성 A지구 1차 저수지		철부,철검,철제따비,철편, 베투편, 목제 방망이	도형 목제품, 첨두형 목제품	고배, 완, 합, 뚜껑, 호, 원통형기대, 시루, 기와, 파수, 바닥에 井자 있는 완저부편	목제칠기, 목간
하남 이성산성 A지구 2차 저수지	서조문팔화경, 원판형 토제품, 장방형 토제품, 방추차, 목제 빗, 골제 비녀, 골각제 빗치개, 동곳, 청동방울, 조형 목제품	철부, 유공부, 쇠스랑, 철촉, 철제 송곳, 어망추, 솥돌, 짚신, 베투편, 동물뼈(돼지, 개 - 개가 가장 많음), 남근형 목제품, 목제 자루	동물뼈(말턱뼈,소1개체분,소뼈), 목조 인물상, 목조조인면 조각품, 목제 소형배, 목제 도자	기와 다량, 고배, 완, 합, 뚜껑, 호, 병, 대옹, 동이, 원통형 기대, 시루, 파수	병에 담긴 목간 3점, 대부장경병에 담긴 목간 4점, 단경호에 담긴 목간 5점, 목간 다량, 팽이형 목제품, 석착 등 석제품, 복골, 버들고리, 사람의 옆머리뼈, 곰뼈(자연 퇴적), 꿩뼈, 자라뼈, 사슴뼈, 마계석기, 이형석기, 석제 이형조각품
하남 이성산성 C지구 저수지	살구시, 원판형 목제품, 원판형 석제품, 원판형 토제품, 원판형 와제품, 토제 망추차, 비녀형 목제품, 빗치개, 목제 빗	철도자편, 철편, 베투, 어망추, 토제 어망추, 개 하악골, 목제 자루	선형목제품, 목제 부지쟁이(칼 모양), 소 정강이, 소 갈비뼈	삼국시대 전기 토기 다양, 고구려계 토기 다양, 신라 및 통일신라 토기 다양, 기와류, 전돌, 시루	목제 자, 목간, 석착, 석부, 석촉, 기타 석기, 고구려척, 팽이형 목제품, 조개껍질, 사슴 두개골 뿌리
함안 성산산성 S10W0조사갱 저수지	조두형 목제품, 원반형 목제품	도자, 작살, 짚신, 방망이형 목제품, 목제 막대기	도자 병부, 목제 환두도, 목검편, 목제 첨기류, 쇠기류, 조형 목제품(마형)	토기 개, 단경호, 토제 송풍관	붓, 광주리편, 바가지, 새끼, 목서 없는 목간, 용도미상 목제품
함안 성산산성 최종저수지	석제 방추차	철촉, 철도자, 목제 방망이		토기편, 파수부편, 기와, 백자, 분청사기	목제용기, 목간, 토제 인장, 청동완
아차산성 A지구 성내 트렌치	방추차, 종형 철기	철모, 철촉, 철검, 쇠스랑, 보습, 팽이, 철제 부월, 철정, 철제초두, 철제 차관, 요대형 철기, 자물세쇠형 철기, 철제 환, 용도불명 철기, 도자 부속 철기어망추, 솥돌, 베투	토우	고배류, 뚜껑류, 대부완류, 완류, 호, 옹, 동이, 시루, 파수, 대상파수, 병, 접시, 파배, 잔	납석제 용기, 등잔, 청동기 시대 석부

유적명	呪力을 가진 물품	용부림 물품	공헌물	토기, 와전류	기타
서울 호암산성 한우물 통 일신라 석축지	방추차	철제월,숫돌,		기와류, 토기류, 시루류, 고 리형 손잡이	중국청자편, 토제 받침모루 청동개합, 백자대접, 백자접 시
서울 호암산성 한우물 제 2우물지	원형 토제품, 청동방울	토제 어망추, 숫돌, 철제교 구 및 철제한		기와류, 토기류, 시루류 저 부편만	등잔류, 석제용기부편, 청 동제 손갈, 무문토기 저부, 석축, 백자접시류
창녕 화왕산성 통일신라 시대 연지	원반형 토제품, 원반형 도 제품(분청사기 저부로 제 작), 청동방울, 철제 방울, 철탁	철제 대도, 철제 가위, 철 제 자물쇠, 철제 열쇠, 철제 작두, 철제 도자, 찰갑, 철제 술, 철제 초두, 철괴, 철촉, 짚신틀,어망추, 남근형 목 간(편병 내부에서 발견), 자 루형 목제품, 목제 방망이	목제인형, 단경호 내부에서 발견된 목간, 호형등자, 철 제 재갈	단경호, 편병, 토기 다종, 기와, 시루저부, 파수, 바닥 에 井자 새겨진 편병	조선시대 자기편, 비격진천 뢰, 사슴뿔, 철제 다연, 목제 다연받침, 향합, 청동유기, 청동합, 분청사기, 백자, 상 평통보, 박, 절구, 목제 사다 리
창녕 화왕산성 삼국시대 연지	방추차			뚜껑, 고배, 대부완, 개배, 대부장경호, 기대, 호, 호 구 연부, 발, 병 경부, 컵형 토 기, 파수, 시루 저부	
안압지	나무 빗 11, 목제 기름마 3, 철제 머리가름마 2, 청동 제 동곳 7, 청동제 동경 2, 방추차 84	철도 18, 철촉 다수, 철제 자귀 8, 철제 공부 15, 철 부, 철모, 철추, 철제 가래, 철봉, 철검 6, 철제 격쇠 7, 철제 가위 2, 철제 호미, 철제 작살 2, 철제못, 철제 자물쇠 11, 목칠 벼루, 숫 돌, 아연 카위 90, 아연 칼 48, 아연 원판 83, 아연 덩 어리 3, 어망추 52, 동물뼈 (개 두개골), 남근형 목제품 2, 인물 목상 2, 방망이 6	소형 목선, 철제 행엽, 철 제 운주, 철제 재갈, 동물벼 (말 두개골), 철제 말	숫막새(3476점), 토수와, 곱새기와, 수키와, 암막새, 박공막새, 모서리와, 암키와, 박공기와, 착고, 귀면, 치미, 전, 대형전, 삼각전, 壁壘, 무문전, 대부완 422, 원저 완 127, 접시 337, 개 144, 등잔 161, 고배 37, 벼루 12, 벼루 파편 172, 병 86, 호 15, 대호 3, 양이호 5, 평저호 11, 원저호 12, 注형 토기, 풍로 3, 장군형토기 2, 파수부이형토기, 시루, 명 문토기파편 9	자완19,자기개,자기접시4,자 기병4, 청동제완 16, 청동 제접시 15, 청동제개, 철 제용기 6, 활석제용기 15, 활석제개 10, 활석재 소호, 골호(개원통보가 들어 있 음), 칠기(저부에 龍, 井 등 선각 명문), 목조 부재, 석 조 부재, 금동제 부재, 금동 불보살상 다수, 목선 파편, 노, 주사위, 철제 두레박고 리, 활석제 사자상, 활석 파편, 기타 석제품, 수정 3079, 구슬 732, 토제 구슬 35, 원형 구 장식 14